



## 미 증시, 고용지표 호조, 파월의장 발언 소화하며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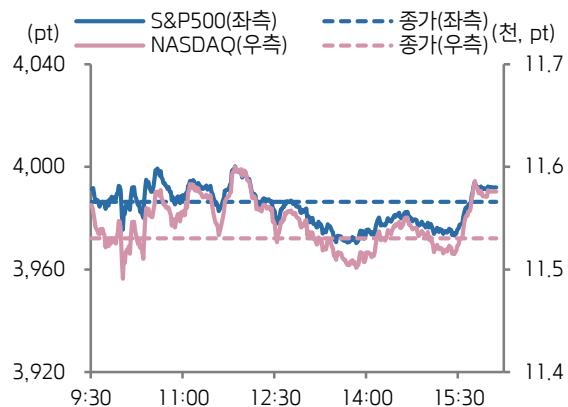
8일(수) 미국 증시는 ADP 민간고용, JOLT 구인이직보고서의 고용 데이터 호조에도, 10일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를 확인하자는 대기심리와 파월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을 덜 매파적으로 해석한 영향에 힘입어 혼조세 마감 (다우 -0.18%, S&P500 +0.14%, 나스닥 +0.4%)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3 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3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은 원화.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체 경제 지표를 볼 때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나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 향후 고용과 물가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임을 강조. 전날과 마찬가지로 금리 정점 전망치를 올려야 할 상황이고, 필요할 경우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 월 JOLTS 구인이직건수는 1082.4 만건(예상 1054.6 만건, 전월 1123.4 만건) 기록,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코로나 19 판데믹 이전 수준인 700 만건을 큰 폭으로 웃돌고 1 월 실업자수 대비 구인 중인 일자리 수는 여전히 1.9로 높은 수준을 유지. 세부적으로는 운송과 창고 등에서 9.4만건 증가한 반면, 건설 -24 만 건, 레저·접객 -19.4만건, 금융 -15.1만건 등 감소세. 또한 2 월 ADP 민간 고용자수는 24.2만명(예상 22.5만명, 전월 11.9만명) 증가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제조업 부문에서 5.2 만명, 서비스업 부문에서 19 만명 증가, 특히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 8.3 만명 증가하며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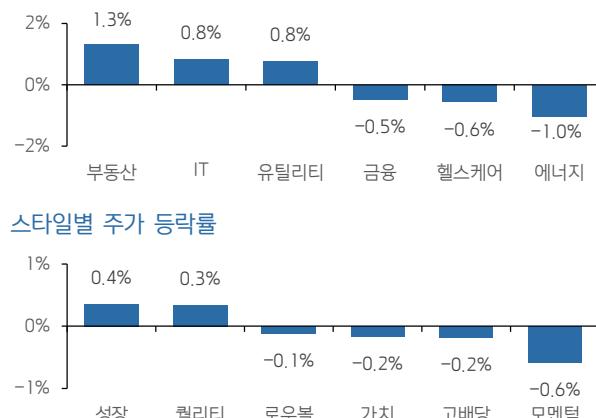
업종별로 부동산(+1.3%), IT(+0.8%), 유트리티(+0.8%) 업종은 강세, 에너지(-1%), 헬스케어(-0.6%), 금융(-0.5%) 업종은 약세.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온세미컨덕터(5.59%)가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전기차 업체와의 계약에 이어 BMW 전기차 부문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고 자동차용 반도체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투자의견을 상향한 영향으로 상승. 엔비디아(3.83%), 마이크론(2.39%), AMD(3.97%) 등 반도체 관련주들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S&P500 & NASDAQ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31.91	-1.28%	USD/KRW	1,321.32	+1.66%
코스피 200	315.38	-1.38%	달러 지수	105.70	+0.08%
코스닥	813.95	-0.22%	EUR/USD	1.05	+0.01%
코스닥 150	1,188.23	+0.19%	USD/CNH	6.97	+0%
S&P500	3,992.01	+0.14%	USD/JPY	137.36	+0%
NASDAQ	11,576.00	+0.4%	채권시장		
다우	32,798.40	-0.18%	국고채 3년	3.850	+12.7bp
VIX	19.11	-2.45%	국고채 10년	3.712	+6bp
러셀 2000	1,879.48	+0.04%	미국 국채 2년	5.070	+6.2bp
필라. 반도체	3,041.39	+2.67%	미국 국채 10년	3.991	+2.8bp
다우 운송	14,866.41	+0.54%	미국 국채 30년	3.894	+2.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88.45	+0.22%	WTI	76.48	-1.42%
MSCI 전세계 지수	632.88	-1.34%	브렌트유	82.49	-0.96%
MSCI DM 지수	2,724.80	-1.44%	금	1818.1	-0.1%
MSCI EM 지수	988.38	-0.54%	은	19.99	-0.32%
MSCI 한국 ETF	59.19	+0.27%	구리	404.3	+1.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연속적인 매파 발언을 쏟아낸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위험선호심리 회복 가능성
2. 미국 반도체주 강세가 국내 관련주들의 반등 탄력에 미치는 영향
3. 2차전지 및 엔터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7 일 상원에 이어 8 일 하원 청문회에서도 파월 의장은 1) 빠른 긴축 필요 시 인상 속도 높일 가능성, 2) 인플레 안정을 위한 제한적인 통화정책 유지, 3) 3 월 22 일 최종 금리 전망치 상향 가능성(기준 5.25%) 등을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한 모습.

파월 의장의 연속적인 매파 발언으로 인해 7일 69%대(6일 29%대)였던 3월 FOMC 50bp 인상 확률은 8일 77%대까지 재차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은 3 월 FOMC 결과를 놓고 각자의 전망들을 재 점검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 외신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인상 속도를 재차 가속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거나(Market Watch), 어차피 10 일 고용지표를 보고 파월 의장은 또 말을 바꿀 것(Bloomberg)이라고 언급하는 등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러측면에서 시장에 혼란을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가 장 후반 들어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점을 미루어보아, 주식시장에서는 일련의 가격 조정을 통해 FOMC 불확실성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 매파 성향을 강화한 파월 의장이었지만, “3 월 인상 수준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고용보고서, CPI 및 PPI 등 인플레 지표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일말의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

이날 발표된 2 월 ADP 민간고용(24.2 만건, 컨센 20.5 만건)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 시켜준 것은 맞음. 그러나 연준의 경기 판단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a) 불확실성으로 수개월 간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b) 일부 연준 관찰 지역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는 등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덜 긴축적인 or 덜 매파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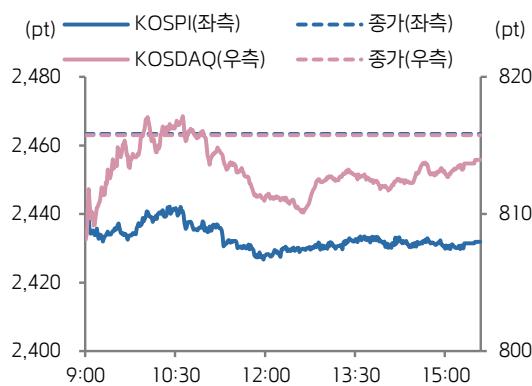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연준 역시 인플레이션 경계감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서 이들의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데이터 의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현시점에서 시장은 3 월 50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으나) 매번 회의 때마다 25bp 씩 인상해가면서 인플레와 고용시장의 변화를 사후 확인하는 정책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충격으로 인한 안전자산선호심리 확산 등으로 급락. 코스닥은 2차전지주들의 반등 및 바이오주들의 급등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코스피 -1.3%, 코스닥 -0.2%).

금일에는 연속적인 파월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인한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 부담에도, 전일 미국 증시의 장 막판 상승 전환 성공이 관련 불안을 완화시켜주면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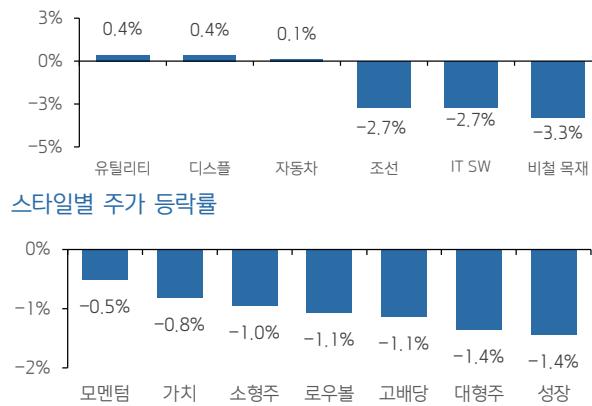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AMD(+4.0%), 엔비디아(+3.8%) 등 반도체주들이 AI 시장 확대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포함 AI 등 IT 관련주들 및 여타 종목군들 간 주가 탄력이 상이할 전망. 또한 수급 쓸림 현상, 지분 경쟁 이슈 등으로 최근 단기적으로 대장주로 부상하고 있는 2차전지, 엔터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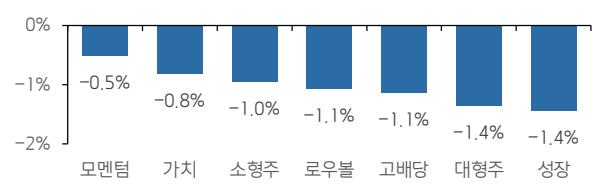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